

최근 IMF의 대 중남미 금융지원 현황 및 향후 전망

1. 최근 현황

□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에 대한 IMF 금융지원 사례 발생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대미 수출, FDI, 대외원조 등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엘살바도르,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상당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IMF에 금융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엘살바도르('08.12)와 과테말라('09.3), 코스타리카('09.4)는 각각 8억, 9억, 7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을, 멕시코('09.4)는 470억 달러의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lexible Credit Line) 차관을 최근 IMF에 신청하였음.

<표 1>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IMF 금융지원 승인 일지

시기	국가	지원 금액	비고
2008.11월	아이슬란드	251억 달러	IMF, EU, WB 공동 구제금융
2008.11월	파키스탄	76억 달러	2009.4월까지 39억 달러 인출
2008.11월	세이셸	0.26억 달러	24개월 대기성 차관, 1.3백만 달러 인출
2008.11월	우크라이나	164억 달러	2회에 걸쳐 총 63억 달러를 인출
2008.11월	헝가리	123억 유로	IMF, EU, WB 공동 구제금융
2008.12월	라트비아	75억 유로	IMF, EU, WB 공동 구제금융
2008.12월	말라위	0.77억 달러	1년 외부충격기금(Exogenous Shocks Facility)
2008.9월	조지아	7.5억 달러	3년 대기성 차관, 1.8억 달러 즉시 인출
2009.1월	벨라루스	24.6억 달러	15개월 대기성 차관, 7.8억 달러 즉시 인출
2009.1월	엘살바도르	8억 달러	14.5개월 대기성 차관
2009.3월	아르메니아	5.4억 달러	28개월 대기성 차관, 2.4억 즉시인출
2009.3월	루마니아	200억 유로	IMF, EU, WB, EBRD 공동 구제금융
2009.3월	잠비아	1억 달러	IMF 추가 용자 추진중
2009.4월	멕시코	470억 달러	1년 신축적공여제도 차관
2009.4월	몽고	2.3억 달러	18개월 대기성 차관, 7.6백만 달러 즉시 인출
2009.4월	코스타리카	0.735억 달러	15개월 대기성 차관
2009.4월	과테말라	9.35억 달러	18개월 대기성 차관

자료 : IMF

□ 아르헨티나, 유동성 문제 타개를 위해 중국과 통화 스왑 체결

- 민간채권단과의 채무재조정과 파리클럽에 대한 채무 상황이 지연되고 있어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아르헨티나도 중국과 102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을 체결하는 등 대외유동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중임.

2. 국가별 IMF 금융지원 수혜 조건 및 배경

□ 멕시코, 신축적 신용공여제도 활용하여 유동성 확보(470억 달러)

- 멕시코는 2009년 4월 1일, 신흥개도국 중 처음으로 470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신용공여제도(FCL)* 사용을 신청하였음.

* 신축적신용공여제도1): 경제 기초체질, 정책 건전성 및 정책이행 실적 등이 양호한 회원국들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몰렸을 때 이용 가능한 대출 제도

- 동 제도는 대출 기간 1년, 상환기간은 3년 3개월(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재원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인출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국가 쿼터(quota)의 10배에 달함.

<표 2> IMF의 FCL 지원 요청 현황

시기(신청기준)	국가	지원요청금액
2009.04.01	멕시코	470억 달러
2009.04.14	폴란드	205억 달러

자료 : IMF

1) 대출기간과 한도가 1년 동안 IMF 분담금의 500% 안의 범위에서 3개월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번까지 달러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기존의 단기유동성기금(SLF, Short-term Liquidity Facility)에 비해 대출조건이 대폭 완화된 차관 제도임. 구제금융과의 유사성 때문에 지원 요청이 전무했던 단기유동성기금에 비해, 신축적신용공여제도는 개시 1개월만에 여러 신흥개도국의 관심을 끄.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IMF FCL 지원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분석 (2009.4월 Mexico 특별 보고서)

- IMF는 '09.4.1자 성명을 통해 멕시코 경제는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거시 경제지표와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우 건실한 경제편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멕시코는 아울러,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도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환 유동성 관련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중임.
 - 상기의 조치들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멕시코 통화인 페소화 가치는 차관도입 발표 후 상승세를 지속, 환율이 1달러당 14페소 이하로 낮아진 상황임.
- 멕시코 정부는 FCL 차입금 도입으로 최근의 확대통화 정책에 따른 페소화 급락을 예방해주는 충분한 외화보유고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엘살바도르, 8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신청

- 엘살바도르 정부는 2009년 12월, IMF에 8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지원을 신청하여, 올해 1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
- 이번 차관 신청은 2009.1월의 총선 및 3월의 대선 등으로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주요 수출국인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여파를 과도하게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
 - 대기성 차관의 인출 기한은 14.5개월이며, 엘살바도르 정부는 당분간 동자금을 인출할 계획이 없고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 자금으로 운용할 예정임을 발표
- 동 대기성 차관신청과 관련, IMF 관계자는 엘살바도르는 중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재정정책, 건실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금융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유동성이 확보된 (liquid)” 국가라고 평가한 바 있음.

□ 과테말라, 9.35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신청

-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3월 IMF에 9억 달러 규모의 18개월 대기성 차관을 신청, 2009년 4월 22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
- IMF는 과테말라 금융 시장이 고위험 파생상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견실한 경제성장을 유지한 점을 감안하여, 자금 요청이 안정적인 대외유동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조치로 이해하고 있음.

□ 코스타리카, 7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으로 외환 유동성 확보

- IMF 이사회는 2009년 4월 13일, 코스타리카가 신청한 7.35억 달러 규모의 15개월 기한 대기성 차관 지원을 승인함.
- 코스타리카는 동 자금을 거시경제지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였으며, 당분간 인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세계경기 침체 및 금융위기가 2009-2010년 코스타리카 경제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평가되지만, 우호적인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와 친시장적인 경제정책 등을 근거로 IMF 차관을 비롯하여, 미주개발은행과 세계은행에서도 추가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유동성 문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외환 유동성 위험국들

-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는 각각 2001년과 2008년에 채무불이행을 선포한 후 채무상환 및 채무 재조정 지연으로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르헨티나 : 중국과의 통화 스왑으로 유동성 확보>

- 아르헨티나는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협상을 지연중이며, 2006년 IMF 구제금융 지원금을 전부 조기 상환하면서 IMF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임.

- 지난 몇 년간 양호한 수출 실적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2008년 말 기준 463억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9-10년 외채상환 금액 만기일이 집중되어 있고 경상수지 적자 반전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유동성 확보의 일환으로, '09.3.28일 미주개발은행(IDB) 제50차 연차총회에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중국 인민은행과 3년 만기, 700억 위안(102억달러)에 달하는 Currency Swap을 체결함.

<에콰도르 : 채무불이행 발표로 향후 자금조달에 난항 전망>

- 에콰도르는 1999년 디폴트 선언 이후 반미주의적인 정책과 반복되는 디폴트 선언²⁾으로 IMF 구제금융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2008년 하반기 글로벌 본드에 대한 연이은 채무불이행 발표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일제히 에콰도르의 신용등급을 디폴트 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음.
- 향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악화,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에콰도르의 신규 자금 확보는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

3. 중남미 국가에 대한 주요 IMF 금융지원 사례 (94년 이후)

□ 1994년 멕시코발 금융위기

- 1994년 멕시코의 만성적인 경상수지의 적자, 외국금융에 대한 의존성 심화, 폐소貨 과대평가, 국내의 정세불안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불거져 급격한 외국 자본의 국외 유출이 이어지며 금융위기가 발발함.
- 멕시코는 1995년 1월 미국으로부터 2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IMF로부터는 1995년 2월에 178억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지원받아 위기를 극복함.

2) 2008년 11월에 2012년과 2015년 글로벌 본드에 대해, 2009년 3월에 2030년 글로벌 본드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

<표 3>

멕시코 금융위기 이후 IMF 지원 실적

단위 : 십억 달러

승인 시기	국 가	지원 금액
1995.2월	멕시코	17.72
1995.11월	코스타리카	0.77
1995.11 - 1997.12	파나마	0.28
1996. 3 - 1997. 6	우루과이	0.31
1996. 4	아르헨티나	1.04
1996. 7	페루	0.43
1996. 7	베네수엘라	1.40

자료 : IMF

□ 1998년 아시아발 금융위기 이후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 IMF는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남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1998년 브라질 정부앞 308억 달러의 신속 구제금융을 제공한 바 있으며, 좌파 후보인 룰라 정부의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2001년과 2002년 8월 2회에 걸친 추가 금융을 포함하여 총 1,097억 달러를 브라질에 제공한 바 있음.

- 브라질은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활용, 2005년 중 155억 달러의 IMF 차관을 조기상환

<표 4>

1998년 금융위기 이후 IMF의 對중남미 지원 실적

단위 : 십억 달러

승인 시기	국 가	지원 금액
1998. 2	아르헨티나	2.81
1998. 3	니카라과	0.2
1998. 9	볼리비아	0.13
1998. 9	엘살바도르	0.05
1998.12	브라질	30.81
1999. 3	온두라스	0.21
1999. 6	페루	0.51
2001. 9	브라질	28.49
2002. 9	브라질	43.53

자료 : IMF

-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2000~2003년, 462억 달러) : 16%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극심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아르헨티나는 2000년 150억 달러의 대외채무 만기가 다가오자 IMF와 세계은행 등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함.
- 2000년과 2001년 사이 307억 달러의 긴급 차관을 지원받았던 아르헨티나는 결국 2001년 말, 810억 달러의 대외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함.
-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6년 1월 IMF 차관 95억달러를 전액 조기상환하며 IMF와의 오래된 협력관계를 청산하였음.

<표 5>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사 IMF 지원 실적

단위 : 십억 달러

승인 시기	국 가	지원 금액
2000. 3 - 2001. 1	아르헨티나	30.68
2003. 1 - 2003. 9	아르헨티나	15.55

4. 향후 전망

□ 대부분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

-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IMF 차관 신청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써, 단시일내 인출 가능성이 낮은 것이 특징임.
 - 국제신인도에 부정적이고, 경제정책 관련 의무사항이 따르는 IMF 자금 지원의 특성상,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는 한 금번 이뤄진 차관신청이 바로 인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경제펀더멘탈이 양호하고 D.S.R. 등 단기적 외채상환부담이 낮은 국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외환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세계 경기침체 지속 여부가 IMF 구제금융 확대의 주요 변수

- 미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중남미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축소되고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이 급감할 경우, 외환보유액 비중이 낮고 경상수지 적자 폭이 큰 중미 국가를 중심으로 IMF 구제금융 신청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최근 미국 금융산업 회복 조짐, 증시 및 환율 등 금융지표 안정 등으로 세계 경제가 소폭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주요 경제분석기관들은 중남미 경제성장 전망을 소폭 상향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출 급감 양상도 상당히 둔화된 상황임.
- 결국 최근의 중남미 국가의 IMF의 구제금융 신청은 세계 경기 악화를 대비한 경제기반이 양호한 국가들의 선제적인 방어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 시점이 구제금융 신청국의 자금 인출, 구제금융 신청 증가 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문의 : 책임연구원 최성규(☎3779-6662)
전문연구원 박현희(☎3779-6676)